



코헴

KOREA HEMOPHILIA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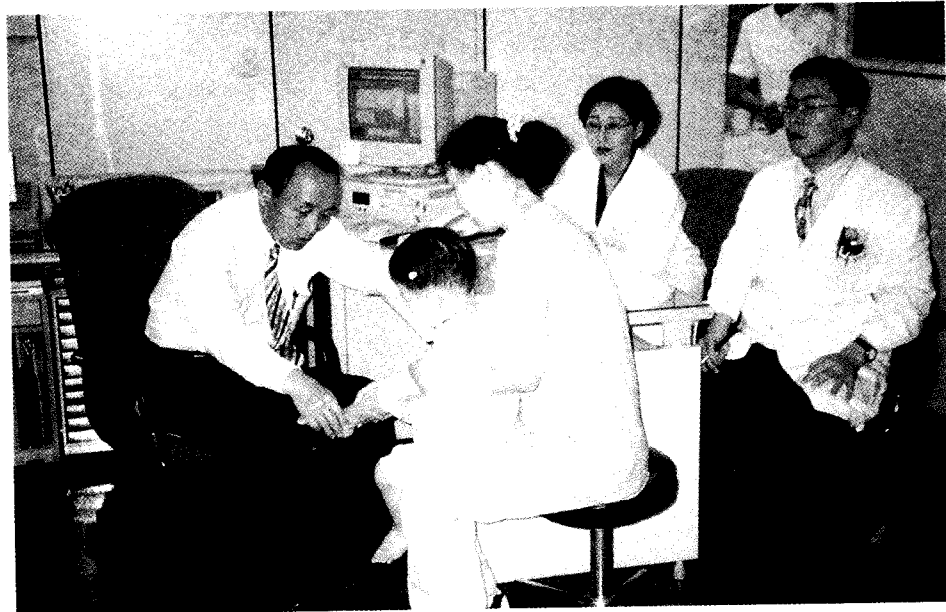
• 등록번호/서바 167호 • 등록일자/1991. 9. 17 • 발행인/이순용 • 발행일/1999. 12. 30 • 편집인/김은주

99
겨울
제34호



사회복지인 **한국혈우재단**
법 인

정형외과 정기검진



지 난 99년 11월 20일에 한국혈우재단의원에서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유명철 교수님과 조윤제 교수님의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정형외과 정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진료신청을 한 21명의 코헬 회원들이 자신의 관절상태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르는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적인 재활수술로 그 동안 관절장애로 고생했던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날 바쁘신 중에도 저희 혈우 가족들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무료 진료를 하여 주신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선생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한국혈우재단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혈우 환자들의 관절장애 예방 및 교정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차 례

1. 초대식	서울적십자 소아과장 박호진
2. 혈우병 상식	한국혈우재단의원 원장 김은주
6. 멋과 고향을 찾아 떠나는 여행	취재 청년회 김승택
8. 가정탐방	취재 청년회 김승택
10. 문예	수필/시
12. 알립니다	

1999년 겨울호

- 등록번호 / 서바 167호
- 등록일자 / 1991. 9. 17
- 발행일 / 1999. 12. 30
- 발행인 / 이 순 용
- 편집인 / 김 은 주
- 인쇄인 / 덕수인쇄 김재호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
 ☎☎☎-☎☎☎
 서울·동대문구 용두동 234-1
 포은빌딩 3층
 TEL:928-4581~2 FAX:928-8440
 크로바서비스 : 080-021-7575

남을 탓하지 말자



서울적십자병원 소아과장
박 호 진

금년에는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작년에는 IMF 한파가 우리 국민 모두를 춥게 하더니, 유난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복지정책」이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 연금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결국은 장관까지 바뀌었고, 의료보험통합 문제가 우리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제는 의약분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가 우리를 추운 거리로 내몰고 있다. 어쩌면 이런 정책들 모두가 앞의 정부들도 다 추진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간단히 보아 넘길 수도 있다.

우리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했는가? 우리 혈우 가족들도 금년 초부터 이런 엉뚱한 돌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연 초부터 지정병원들에 몰아닥친 의료보험 삭감이 그 하나이고, 11월 중순부터 시행된 약품 실거래가 제도가 다른 하나인 것이다. 지금까지 인정해 왔던 치료기준들을 의료보험 재정이 어렵다 보니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명분아래 실제로 혈우병 환자들을 다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견해에 의해 - 그것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해서 - 무차별적인 삭감을 함으로써 혈우병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더니, 이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실거래가 제도로 해서, 비록 일부의 특정한 단체에 국한되는지는 모르지만 한쪽의 복지혜택이 없어진다면, 그 복지혜택은 진정한 복지혜택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두를 그 사람들 탓이라고만 하고 그들을 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자신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일이 잘못된 것은 다른 누군가의 잘못 탓이다"라는 억지스런 변명을 한다. 회사의 상사에게 야단맞아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보다는 '이게 다 A가 일을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완벽히 준비했는데 말야.' 하는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흔히 남이나 환경 탓으로 돌려버리곤 한다.

남을 탓하는 습관은 분노, 좌절, 의기소침, 스트레스 뿐 아니라, 불행한 삶까지 남의 책임으로 돌리게 만든다. 그러나 남을 원망하고 그의 잘못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평화스런 삶에 가까와 질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일으킨 문제로 좌절하게 되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들 일에 책임있게 대처해 왔나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주었던 복지혜택의 폭을 다소 줄이고 일부를 저축해서 영구적인 fund로 발전시켜 왔어야 하지 않았을까? 제도는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방향이 언제나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도 아닌데,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대책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런 후회도 사치스러운지는 모른다. 우리가 지금 극도로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느낀다면,

이런 현실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혈우총회에 참석해 보면 아직도 혈우병 제제를 공급받을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 북한의 혈우 가족들도 있고, 연변의 우리 동포들도 있다.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다소 나은 것이 아닐까?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또 그러기에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우리의 주장이 담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이고,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은 무수히 많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행·불행의 선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남을 탓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우리의 행복을 타인의 행동에 좌우되는 통제 불가능한 부수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에도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고, 노력 여하에 따라 좀더 새롭고 바람직한 감정이 솟아오르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타인을 책망하기 보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이 난국은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혈우 가족들 모두가 하나 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인 혈우병 환자의 통계적 분석

한국혈우재단의원 원장 김 은 주

혈우병은 유전성 질환으로 일생동안 이 병을 치료, 관리하며 지내야 하는 포괄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우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출혈에 대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빈번한 출혈 형태인 관절강내 출혈로 인한 급, 만성 후유증의 치료와 재활, 과거의 수혈과 바이러스 불활성화가 되지 않은 혈액제제의 사용에 따른 만성 간염과 에이즈의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전 질환에 대한 보인자 검사와 산전 진단 등의 유전학적 검사와 연구,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과 정신, 심리학적 상담 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치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혈우병 환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 치료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내의 혈우병 환자의 통계적 분석은 향후 혈우병 관리 정책을 세우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1991년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한국혈우재단에 등록된 국내의 혈우병 환자들의 등록 현황과 각종 병력, 후유증, 바이러스 감염 실태, 응고인자 투여력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1999년 말 결과를 내게 되어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연도별 등록환자 현황

1999년 6월 30일 현재 혈우병 A 환자 1,142명, 혈우병 B 환자 193명으로 총 1,335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 도	혈우병 A (%)	혈우병 B (%)	합 계
1991	590 (85.1)	103 (14.9)	693
1992	742 (87.8)	121 (12.2)	845
1993	806 (86.0)	131 (14.0)	937
1994	896 (86.1)	144 (13.9)	1040
1995	944 (86.1)	153 (13.9)	1097
1996	1004 (86.1)	162 (13.9)	1166
1997	1061 (85.9)	174 (14.1)	1235
1998	1099 (85.6)	185 (14.4)	1284
1999 (6/30 까지)	1142 (85.5)	193 (14.5)	1335

2. 사망 현황 및 사망 원인

1999년 6월 30일까지 총 45명의 혈우병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중 혈우병과 관련된 출혈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 31명(68.9%)이었는데, 이를 원인별로 보면, 뇌출혈이 13명, 장출혈 4명, 복강내 출혈이 3명, 폐출혈 2명, 교통사고 후 출혈 6명, 출혈 부위의 감염에 의한 사망이 3명이었습니다. 이 외에 에이즈로 인한 사망이 3명, 출혈 이외의 기타 원인에 의한 사망 6명, 원인 미상 5명이었습니다.

사망자 45명 중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어 응고인자 투여에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는 8명(17.8%)이었습니다.

3. 혈우병의 분류 및 중증도

총 1,335명 환자 중 혈우병 A 환자는 1,142명으로 전체의

85.5%이었으며, 혈우병 B 환자는 193명으로 14.5%를 차지하였습니다. 1,335명 환자 중 응고인자 활성도 1% 미만인 중증 환자가 892명(66.8%)이며, 활성도가 1-5%인 중등증 환자가 344명(25.8%), 활성도가 6-30%인 경증 환자가 90명(6.7%)이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경증 환자의 비율이 50% 이상 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에는 아직 진단되지 못했거나 등록되지 않은 중등증 및 경증 환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중증	중등증	경증	미상	합계 (%)
혈우병 A	769	291	76	6	1142 (85.5)
혈우병 B	123	53	14	3	193 (14.5)
합계 (%)	892 (66.8)	344 (25.8)	90 (6.7)	9 (0.7)	1335 (100)

4. 혈우병 환자의 연령 분포

혈우병 환자의 연령은 7개월부터 81세 6개월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연령의 중앙치는 18세 11개월이었습니다. 1988년에 보고된 국내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의 소아 연령이 67.1%였고 30세 이상이 1988년에는 6.8%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15세 미만의 소아 연령이 39.1%이며, 30세 이상 연령이 23.4%를 차지하고있어 전체적인 연령 분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국내 혈우병 환자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세)	혈우병 A	혈우병 B	합계 (%)
0-4	108	21	129 (9.7)
5-9	186	27	213 (15.9)
10-14	55	25	180 (13.5)
15-19	60	29	189 (14.1)
20-29	266	47	313 (23.4)
30-39	158	27	185 (13.9)
40-49	76	13	89 (6.7)
50-	33	4	37 (2.8)
합계	1142	193	1335 (100)

5. 진단된 나이

1,280명의 혈우병 환자에서 진단된 나이가 조사되었습니다.

다. 1세 미만에 진단된 환자는 365명(28.5%)이었고, 1-2세에 진단된 환자는 302명(23.6%)이었습니다. 3-4세에 진단된 경우는 122명(9.5%)이었고, 5-9세에 진단된 경우는 146명(11.4%), 10-19세에 진단된 환자는 175명(13.7%)이며, 20세 이상에 진단된 경우도 170명(13.3%)이 되었습니다.

6. 가족력

55.4%의 환자에서 혈우병의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혈우병 A나 혈우병 B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중증과 중증이 아닌 환자간에도 가족력의 빈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7. 출혈 병력

출혈 병력	중증(%)	중등증(%)	경증(%)	미상	합계(%)
멍이 잘든다	867 (99.9)	314 (98.7)	60 (87.0)	6	1237 (98.1)
코피	550 (63.4)	187 (58.8)	42 (60.9)	2	781 (61.9)
구강 점막 출혈	531 (61.2)	178 (56.0)	39 (56.5)	3	751 (59.6)
관절내 출혈	828 (95.4)	269 (84.6)	43 (62.3)	4	1144 (90.7)
근육출혈	787 (90.7)	243 (76.4)	34 (49.3)	3	1067 (84.6)
혈뇨	403 (46.4)	107 (33.6)	8 (11.6)	1	519 (41.2)
장출혈	317 (36.5)	81 (25.5)	12 (17.4)	0	410 (32.5)
뇌출혈	163 (19.0)	30 (9.4)	1 (1.4)	0	194 (15.4)
외상후 지혈부전	591 (68.1)	207 (65.1)	39 (56.5)	2	839 (66.5)
수술후 지혈부전	194 (22.4)	87 (27.4)	24 (34.8)	2	307 (24.3)
합계	868 (100)	318 (100)	69 (100)	6	1261 (100)

8. 출혈 빈도

중증 혈우병 환자는 월 3-4회 출혈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활동량이 많은 연령인 5-19세 환자가 이외의 연령에 비하여 출혈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빈도 (회/월)	중증(%)	중등증(%)	경증(%)	미상	합계(%)
<1	103 (11.9)	119 (37.4)	57 (82.7)	4	283 (22.4)
1-2	220 (25.3)	94 (29.6)	8 (11.6)	2	324 (25.7)
3-4	328 (37.8)	79 (24.8)	1 (1.4)	0	408 (32.4)
5-8	175 (20.2)	19 (6.0)	2 (2.9)	0	196 (15.5)
>8	42 (4.8)	7 (2.2)	1 (1.4)	0	50 (4.0)
합계	868 (100)	318 (100)	69 (100)	6	1261 (100)

9. 1998년 연간 응고인자 사용량

1998년 국내의 혈우병 환자 1인당 평균 44,306단위의 응고인자를 투여하였습니다. 혈우병 A 환자의 경우는 1인당 47,300단위의 응고인자를 사용하였는데 중증 혈우병 A 환자는 1인당 57,181단위의 응고인자를 소모하였습니다. 혈우병 B 환자의 경우는 1998년 1년간 1인당 26,524단위의 응고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혈우병 A 평균 사용량 (단위)	혈우병 B 평균 사용량 (단위)	전체 환자 평균 사용량 (단위)
중 증	57,181	31,350	53,703
중등증	28,881	18,642	28,133
경 증	10,313	16,946	11,445
미 상	2,125	17,000	11,050
전 체	47,300	26,524	44,306

연령별 비교를 위하여 환자 1인의 체중 kg 당 응고인자 소모량을 조사하였더니, 5-9세 연령이 1인당 체중 kg당 1,487단위를 사용하여 가장 많은 응고인자를 소모하는 연령군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19세 연령이 1,175단위, 0-4세군이 1,133단위를 사용하였습니다. 혈우병 환자들의 연간 응고인자 사용량은 얼마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의 치료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하였고, 아직 세계 혈우 인구의 80%가 응고인자 투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이상의 치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세)	혈우병 A 평균사용량(단위/kg)	혈우병 B 평균사용량(단위/kg)	전체 환자 평균사용량(단위/kg)
0-4	1,253	508	1,133
5-9	1,597	721	1,487
10-19	1,275	613	1,175
20-29	907	530	854
30-	661	473	634
전체 환자수	1,094명	565명	1,018명

10. 가정요법

환자 본인이나 환자 가족이 응고인자 투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59.2%이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자가 주사가

가능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32.3%이었는데, 10세 미만에서는 없었으며, 10-19세 환자도 15.2%만이 가능하였고, 20세 이상의 환자는 61.3%에서 자가주사가 가능하였습니다.

나이(세)	전체 환자 중 가정요법 가능 빈도 (%)	전체 환자 중 자가주사 가능 빈도 (%)
0-4	3.1	0.0
5-9	39.2	0.0
10-19	66.3	15.2
20-	74.3	61.3
전체 환자	59.2	32.3

11. 만성 혈우병성 관절병증

전체 환자의 69.9%에서 만성 혈우병성 관절병증이 관절 이상에 발생하여 있었습니다. 특히 20세 이상의 중증 혈우병 환자는 97.8%에서 만성 혈우병성 관절병증이 있었습니다. 관절별 발생 빈도를 보면, 슬관절의 만성 관절병증이 전체 환자의 53.5%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족관절이 52.6%, 주관절이 41.6%로 나타났습니다.

관절명	전체 환자 중 발생빈도(%)	중증 환자 중 발생빈도(%)
고관절	10.2	11.5
슬관절	53.5	58.8
족관절	52.6	60.4
견관절	8.6	9.5
주관절	41.6	42.4
완관절	1.4	1.8

12. 응고인자 항체 발생 빈도

혈우병 A 환자 중 5.1%인 56명 환자에서 응고인자 항체가 1Bu/ml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중 44명은 항체가 10Bu/ml을 넘는 고반응 항체군이었습니다. 또한 혈우병 A

항 체 가	빈도 (%)
고반응 항체 (>10 Bu/ml)	44 (4.0)
저반응 항체 (1-10 Bu/ml)	12 (1.1)
일시적 항체 양성	149 (13.6)
항체 없음	888 (81.3)
합	1093 (100)

환자의 13.6%인 149명은 치료 중 응고인자 항체가 발생하였으나 치료에 따라 항체가 소실된 일시적 항체 양성군이었습니다.

항 체 가	빈도 (%)
고반응 항체 (>10 Bu/ml)	6 (3.7)
저반응 항체 (1-10 Bu/ml)	1 (0.6)
일시적 항체 양성	2 (1.2)
항체 없음	155 (98.2)
합	164 (100)

혈우병 B 환자는 4.3%인 7명에서 1Bu/ml 이상의 항체를 보였습니다.

13. anti-HCV, HBsAg 양성률과 만성 간염 발병률

전체 환자의 48.9%인 650명의 환자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지표가 되는 anti-HCV(C형 간염 항체)가 양성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전체 환자의 11.6%

인 154명은 만성 C형 간염으로 나

타났습니다. 나이별 anti-HCV

양성률을 보면, 0-4세 환

는 2.3%, 5-9세는 2.4%인

데 반하여 10-19세 환

자는 63.3%와 20세

이상 환자는 65.9%

로 나타나 바이러스

불활성화가 국

내에 도입된 1989

년을 기준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이 현저히 감소하였음

을 볼 수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의 지표가 되는 HBsAg 양성

은 전체 환자의 3.7%인 49명에서

관찰되었고, 이 중 15명(1.1%)은 만성 B형

간염으로 나타났습니다. 10세 미만 환자에서는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14. 에이즈 감염 현황

anti-HIV(에이즈 항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1,329명 중 21명의 환자가 anti-HIV 양성으로 1.6%의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국내의 혈우병 환자는 총 환자수로 보면 타 질환에 비하여 많은 수는 아니지만, 유전 질환으로 평생동안 많은 의료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또한 혈우병에 의해 발생하는 많은 후유증과 혈액 제제 투여에 따르는 각종 바이러스 안전성 문제 등이 혈우병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혈우병 등록 사업은 중요하리라 생각되며, 이를 통하여 혈액 제제의 바이러스 안전성에 대한 감시, 각 제

제를 사용함에 따른 항체 발생 빈도나 부

작용 등을 조기에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고인자 사용

량을 앞으로써 국가 혈액

수급을 계획하고 치료

제의 증가와 발전에

따른 치료 비용의

증가를 예측, 계획

할 수 있는 것입니

다. 이러한 등록,

관리 사업을 통하

여 제한된 인적, 물

적 의료 자원을 보

다 효율적으로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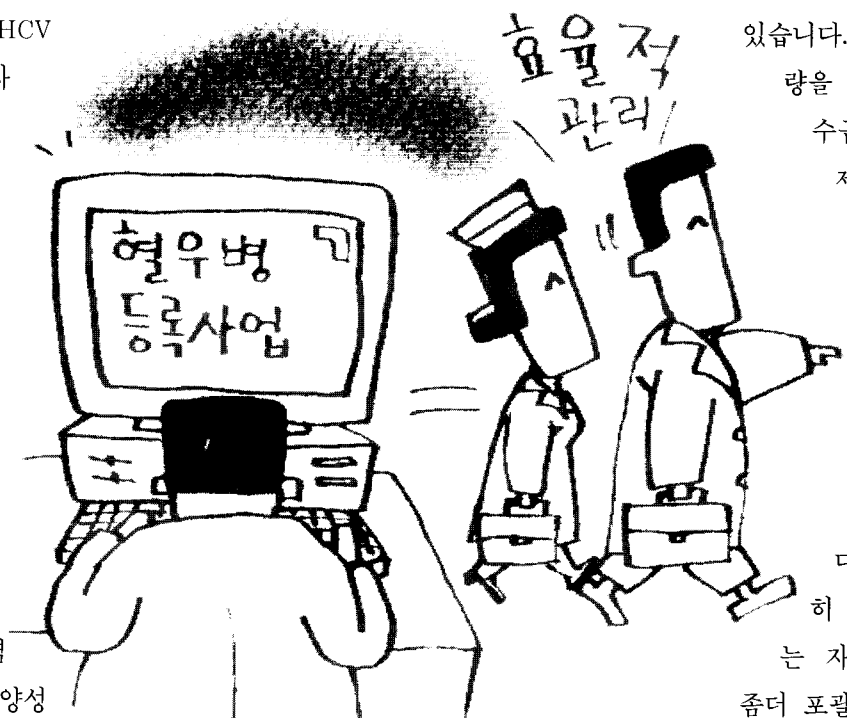
히 배분, 활용할 수 있

는 자료로 삼아야 하며,

좀더 포괄적인 혈우병 환자의

치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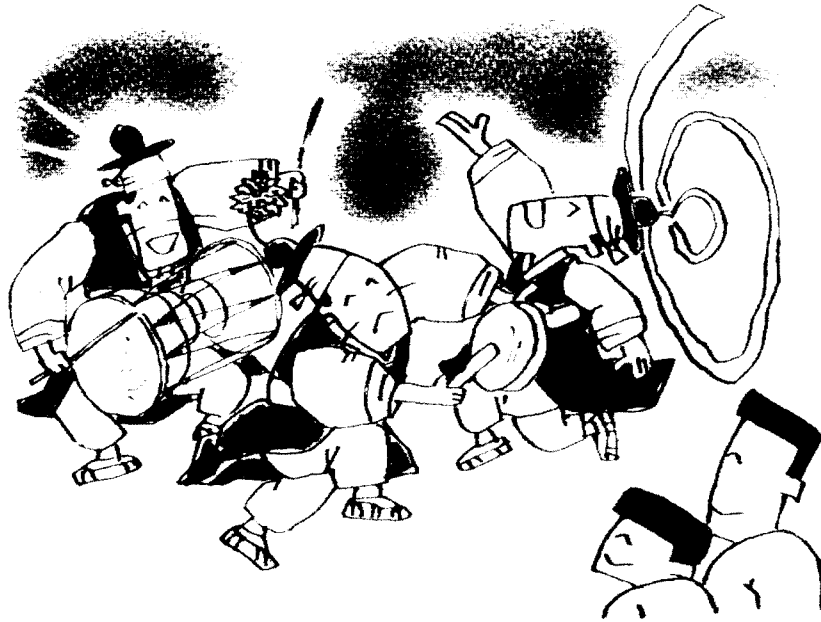
영원히 지켜나가는 문화유산

취재 김 승 택

만평에 282동의 각종 건축물과 부대시설물이 들어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로서 성장, 발전하였다.

마을의 구성

마을은 한민족의 민속자료와 민족 문화유산을 수집, 재현, 복원, 전시, 공연, 보존, 전수하는 「민속경관 구역」과 한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조사, 연구하여 민족문화유산과 민속자료를 전시, 교육, 교류하는 「박물관 구역」 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가족 공원」 전통 음식을 맛 볼 수 있고, 공예,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장터와 편의시설 구역」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민속촌 주차장에 자동차 전용극장이 생겨 민속촌 구경과 영화관람을 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나라에 대해 알고있을까? 학교 때 배운 잠깐의 단편적인 지식들, 혹은 입시를 위해 무조건 외워야했던 역사나 사건들, 목적을 위해 억지로 배워야했던 지금까지의 교육에서 벗어나 조상의 일과 한민족의 지혜가 숨어 있고 숨결이 배어 있는 민속 자료와 민족 문화유산들을 통해 지금의 세계의 단일 문화권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한민족의 주체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을 찾아 한민족 문화를

짧은 시간에 보고, 듣고, 배우고, 즐기며, 한민족의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로 한다.

1974년 10월 개관

한국 민속촌은 1960년대부터 한민족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문화계 종사자들의 움직임과 1970년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의 관광사업 진흥정책에 힘입어 1973년 8월 5일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보라리 107번지 일대 약 20만평의 부지 위에 30여가구의 민속촌을 건립하기 시작했으며 부지와 시설물 확장 및 보완 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현재는 22

민속경관지역

민속경관 지역은 한민족의 생활양식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조선시대 후기 각 지방의 특색 있는 가옥 168동을 이전, 복원하여 각 지방에서 수집한 3만여 점의 가재도구를 배치하여 세시에 따라서 의식주 생활과 생업기술, 신앙의례, 민속놀이 등을 쉽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게 전시하



고 있다. 민속경관 지역에는 남부, 중부, 북부, 제주, 울릉도민가와 지역별, 계층별, 생업별, 전통가옥과 관아, 사찰, 서원, 서당, 서낭당, 디딜 방앗간, 물레방앗간, 통방아, 비각, 비림, 홍살문, 홍예교, 평석교, 목교, 외나무 다리, 공방, 논, 밭, 공연장 등을 복원 전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 볼거리로는 관아(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곳으로서 뒤뜰에 감옥도 같이 있다.)와 한약방, 그리고 99칸의 집으로 수원성안에 지어졌던 건물을 그대로 옮겨온 중부지방의 양반가, 시원한 큰 마루와 부뚜막이 없는 게 특징인 제주 민가, 울릉도에서 원형 그대로 옮겨와 지었다는 울릉도 민가가 인상적이다.

20여개의 공방에서는 도자기, 조리, 바구니, 광주리, 나막신, 짚신, 한지, 농기구, 가구 등을 장인들이 직접 제작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야외의 공연장에서는 하루에 두 차례씩 농악, 줄타기 등을 공연하고 있고, 봄, 가을과 명절에는 "세시풍속" 등을 재현하고 있다.

장터

장터 먹거리에서는 장국밥, 된장찌개, 비빔밥, 순대국밥, 추어탕, 칼국수, 냉면, 도토리묵, 해물파전, 순대, 빈대떡, 인절미, 동동주 등의 토속적인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 상가에서는 각 지방의 토산품과 기념품을

직접 제작 판매하고 있다. 또 옛 장터에서는 각 지방의 전통적인 향토의 음식을 옛 장터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면서 맛 볼 수도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민속촌 내에서 재배하는 각종 채소를 재료로 사용한다고 한다.

박물관 구역

박물관 구역에 있는 민속관은 그동안 야외 민속촌에서 재현 전시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분야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 수집, 전승, 보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1996년 민속촌 내에 설립되었다. 민속관의 전시물은 조선시대 후기의 어느 한해 동안 4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들이 겪은 연중 생활의 모습을 세시풍속과 관혼상제, 민간신앙, 연회오락, 생업기술 자료를 중심으로 의식주생활, 민속놀이 등의 축소모형과 움직이는 인형, 만화와 옛 그림, 실물 등을 통해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생활문화 전반을 재미있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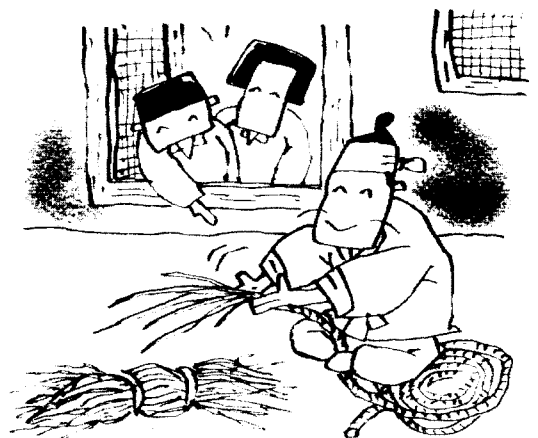
끝맺는 말

지금껏 우리는 한국 민속촌은 외국인 찾은 관광지가거나 TV드라마에서 사극의 촬영 세트장 정도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새 천년을 앞둔 지금의 시대는 고도의 물질문명과 경쟁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을 느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찾아가는 길

1. 대중교통
남부버스터미널 (시외직행버스)소요시간 : 1시간
수원역-한국민속촌 (시내버스: 37번)소요시간 : 1시간10분
수원역 광장-한국민속촌 (무료 셔틀버스)소요시간 : 30분
2. 승용차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신갈 I.C -신갈오거리에서 3km(이정표)



바쁘게 살다보면 아픔도 잊지요

취재 김 승 택

인 터넷의 역사는 무척 짧지만 역사상 전화나 TV보급만

큼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자 상거래는 집에서 편하게 쇼핑하면서 매장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일석이조의 인터넷쇼핑이라고 하겠다. 이런 인터넷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어 사람이 있다. 천호동에서 출판기획사(우림기획)를 경영하고 있는 이명림씨(34세)는 작년 도메인 네임(홈페이지주소)을 인수한 후 재정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인터넷 상점(www.cardmart.co.kr)을 운영중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명함, 청첩장과 상품 카탈로그등의 인터넷 주문판매와 홈페이지 제작안내와 결들여 결혼예식에 따른 비용과 각종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3년 넘게 출판기획사를 경영해 오면서 익힌 노하우와 전자상거래의 특징이 잘 배합되면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이 꽤 몰려오고 있다고 한다. 그는 또 다른 전자상거래 사업도 구상중이라고 필자에 게만 살짝 귀뜸 해줬다. 사업을 시작



올해 봄나들이 때의 이명림씨 가족

하면서부터 쉴 틈이 없었다는 그는 항상 바쁘게 사니까 아플 틈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까지는 새벽에 수영장에서 체력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너무 바빠 잠시 쉬고 있다. 그가 사업에 수완을 발휘하는 비결을 던지지 못어봤다.

“항상 사고(思考)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자기개발을 위해 몰두하고 공부하다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떠오릅니다. 또한 항상 멀리 내다보는 안목

이 중요하구요. 그러다 보면 성공이 보일 겁니다.”

명림씨의 판단력과 사고력은 어찌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혼자 터득했을지도 모른다.

강원도 인제가 고향인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춘천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교는 서울에서 마쳤다. 어려서부터 혼자서 생활해야했으므로 그로서는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길러졌으리라...

명림씨는 두 달 전 둘째 아이의 아빠가 됐다. 그 만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느낀다는 그는 집에 오면 큰아이 찬우(3살)와 노는 것이 요즘의 큰 재미다.

부인 노연숙(32세)씨는 남편이 너무 내성적이고 표현이 부족한 것이 불만이란다. 좀 살갑게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단다. 화통한 성격의 부인은 어느 정도 아이들을 키워놓고 남편의 사업을 돕고싶은 바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는 사내커플이다.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 잠시 있다 어학원에서 근무할 때 같은 직장에서 만나 2년 연애 끝에 97년 식을 올렸다.

“알고 보니 이 사람 고향도 저와 같

더라고요. 웬지 객지 생활 중에 같은 고향사람을 만나
니 금세 친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자취집도 한 동네였
구요. 그래서 가끔 카풀도 했고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
친 적도 많았어요.”

연숙씨는 또 '연애시절에는 성격차이로 많이 다투었
지만 그러면서 정이 들었나보다'라며 남편과 마주보며
보며 웃었다.

결혼한 후 아침은 한번도 굶어(?)보지 않았다는 명림
씨, 그 만큼 내조에 충실한 부인이 너무 고맙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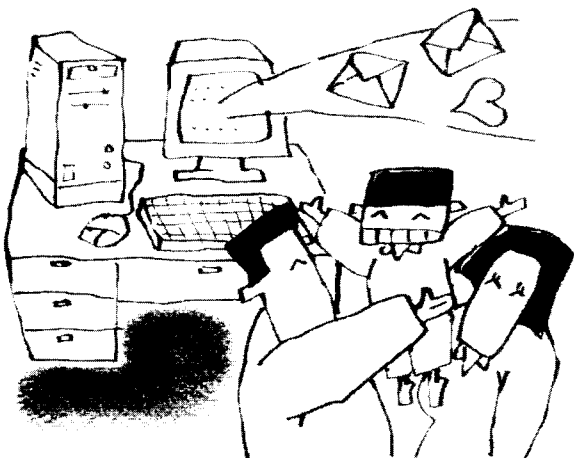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좀
더 안정이 되면 코렘 후배들에게 어떤 일이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단다.

“자신에 대한 편견이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 그 이상은 죽어도 쳐다보지 않는 선입관
같은거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벌써 말과 행동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요. 벌써 한발 지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요즘 같은 험한 세상
에서는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단호하게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 지금껏 그가 걸어 온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부단한 자기성찰과 노력, 패기 있고 진취적인 사고,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의 배양. 이렇듯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 할 수만 있다면 그 성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했다. 여
기에 육체의 질병 따위가 그다지 크게 차지하지 않음을
필자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



고추잠자리

전북 조현 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고추잠자리

고추를 먹고 와 빨강게
물들은 고추잠자리

고추를 먹고 와 빨강게
물들면 맵지 않을까

고추잠자리들이 물려오면
하늘이 빨게 질지도 모르네

우리집 빨간고추 냄새 맡았나
고추 위에 살며시 앉은 고추잠자리

귀여운 내 동생
고추잠자리를 살며시
잡았다 놓쳤네 우리마당에
잡기소동 벌여줬네...

희생을 감당하는 용기는 누구에게 있는가

서울 성 상 군

인 생에는 희생이 있다. 희생은 흔히 겸손한 사람일 수록 그것을 감당할 용기가 생긴다. 아예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나 단순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자신도 없을 뿐더러 또는 감당하려조차 꿈꾸어 보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겸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희생을 감당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생의 목표를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희생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희생이 앞으로 알게 될 자기의 인생의 목표에 방해가 될 것같은 마음속에 내재된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 또는 삶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삶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할 뿐 삶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희생은 감당할 수가 없다.

삶의 목표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인생을 향로한다.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희생은 그들이 가는 길의 행로에 변화가 있을 수 있

겠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다. 그래서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있는 것이다.

어느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 때문인지 지금껏 살아온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할지 막연해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비의 한도에 맞추어 A도시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넉넉지 않던 여비를 나누어 주어야 할 것같은 어렵고 딱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A도시로 가려고 버스터미널로 가고 있었던 한 사람은 자기의 여비를 지출하게 된다면 버스를 사야 할 돈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음날 버스 대신 값싼 입석 기차를 타고 어쩔 수 없이 떠날 늦게 A도시에 도착할 생각으로 여비를 지출했다. 다른 한 사람은 먼저 사람이 자기의 여비를 떼어주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부족해지는 여비는 곧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살던 곳

을 떠나 자기가 가고 싶은 어디론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위협이었고 그것은 곧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존의 두려움이기도 했다. 결국 그는 그의 여비를 떼어놓아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고는 미안해하고 괴로워했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광의적으로 삶의 목적을 안다는 것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희생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는 곧 그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거나, 매우 근접하게 알아 가고 있는 바로 차나에 선 사람들일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 또한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해 잠시 주춤할 뿐이지 결코 낙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희생은 찬란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일 뿐, 곧 패배나 실패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억(MEMORY)-비틀즈에게

아 직도 나만의 작은 공간인 작은 차 속에는 비틀즈의 노래가 숨을 쉬고 있다.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 머리 찰랑이던 사내아이를 처음 만난 것이...

그 때 나는 시 나부랭이를 쓴다며 하루 담배 두 갑은 거뜰히 피우며, 못마시는 소주도 병 채 마시고, 밤새 시 한 줄에 밤을 지새우고, 영화 논평에 핏대를 올려가며 싸우던 때였다. 그 때는 난 세상에 시나 영화이외에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고, 지금처럼 먹고 살 걱정 따위는 위선 섞인 어른들의 것이라 치부하였을 때였다. 그런 그 때 난 어느 연극 무대 뒤편에서 대사 한마디 없다가 막이 끝나면 바쁘게 무대를 정리하곤 하던 한 사내를 알게 되었다. 그는 눈이 맑고 긴 머리를 찰랑이며 뛰어다녔고 그러다 크고 힘차게 웃곤 하였다. 그는 아는 사람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충분했고, 자신 또한 건강했다. 반면에 난 사람 모두를 우울하기 충분한 독설을 가지고 표정을 가지고 사는 젊은이였다. 그를 처음 만나던 그 날도 난 엉터리 연극이라며 맨 가장자리에 어설피 자리 잡고 있는 그가 서있는 무대를 향해 공연 내내 욕해대고 있었다.

그리고 난 연극이 끝나기 무섭게 독설을 퍼부으며, 공연장 밖을 나서고 있었다. 그 때 누군가 날 힘차게 불렀다.

“이봐요. 당신..., 당신은 웬 세상에 볼만이 그리 많아?”

그였다. 그렇게 우리는 만났고 그 날 밤을 꼴딱 새며 서로 욕을 해댔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였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 느끼는 청년이었다. 그와 난 매일 만났으며, 그는 나에게 하루 한가지씩 생존을 하는 법(이를 태면 생선회를 먹는 법, 개 다리를 맛있게 뜯는 법, 여자를 잘 꼬시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고 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가고 있었다. 담배와 술을 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그 없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 역시 내게 그렇다고 답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갈아져 가고 있었는데 단 하나 다른 것은 그는 비틀즈를 사랑했고, 그들의 노래를 존경하며 살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난 비틀즈의 노래가 어느 것은 너무 시끄럽고, 어느 것은 너무 소녀틱한 것으로만 들렸고, 비틀즈의 노래를 좋아하는 그 역시 너무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비틀즈는 듣지 않으려 애를 썼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벗이 되어 많은 날을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에 있어 생애 최고의 찬스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극단과 자매 결연을 맺은 미국

극단에서 자기네 극단 및 알선 학교에서 공부할 학생을 뽑는데 우리 대표가 날 추천해 주었어”

난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렇지만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도 또한 있었다. 그와 헤어지는 것이므로...

한국을 떠나던 날, 그는 내게 긴 포옹을 남긴 채 꿈의 땅 아메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난 공항 로비 큰 창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그와 나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를 보낸 후 한 동안은 그를 그리워하며 온 종일을 보냈으나, 얼마 후 난 다시 내 생활에 충실하며 그를 서서히 잊어갔다. 그가 잘 살고 있으리라 믿으며...

그가 떠나간지 1년이 훨씬 넘었을 무렵 다시 그 옛날 정답던 시와 영화를 논하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내게 소식을 전해 주었다. 얼마 전 그가 죽었다고, 뉴욕 어느 뒷골목에서 총을 맞고 죽어, 흐르는 맨하탄의 강물에 가루로 흘러 보냈다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난 그 동안 별로 듣지 않았던 비틀즈의 노래들이 좋아졌다. 사실은 노래 보다는 내 친구 기현의 치렁한 머리와 이를 하얗게 들어내며 웃는 그 모습이 아직도 그 노래들속에 살아 있으므로...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게 강변북로 한켠을 달리게 하고 비틀즈의 노래를 듣게 하는 그가 그리워진다. 그리고 보고싶다.

PC男이 PC女에게 求愛(구애)하며

인천 김승근

당신없는 이 세상은 CPU빠진 컴퓨터이며, 잉크없는 프린터기요, 엔터키 빠진 키보드이며 또한 휴즈나간 파워 서플라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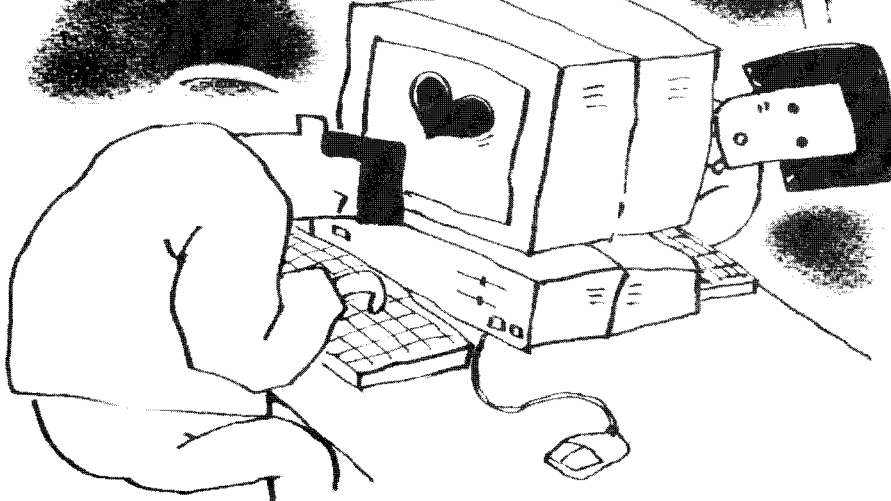
당신이 원하신다면 사운드 카드와 스피커처럼 항상 함께 하겠으며, 당신의 모든 자취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때론 rw-com에 구워 놓겠소.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mp3로 매일 듣고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를 항상 연습하고 있도오. 나는 당신에게 무용지물처럼 사용하지 않는 FDD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항상 당신이 감싸쥐고 있는 마우스가 되리라.

당신이 내게 특별한 것을 원한다면 순순히 윈도우98을 포기하고 리눅스가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마음을 받아준다면 cpu가 오버 클릭 되어도 다운되지 않는 참다운 PC가 될 것이겠지만 만약 슬픈 소식을 전해준다면 내 스스로가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른도오.

추신: 당신을 만날 때까지 전원절약모드로 대기하고 있었...



서울 김승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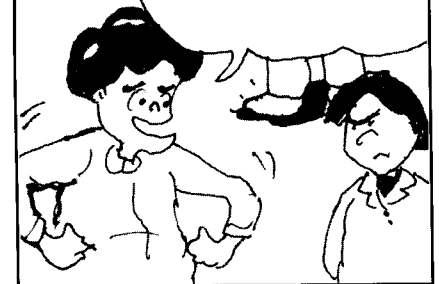
권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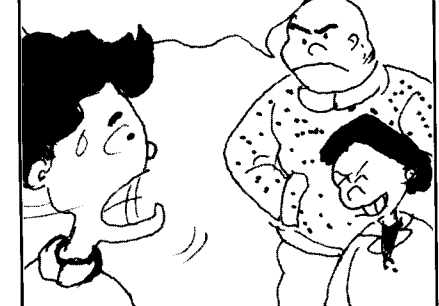
찌그만 녀석이
시민을 괴롭히네.
내가 손좀 봐줄까?



이봐 꼬마야!
너 영화 람보 봤지?
내 별명이 람보야!



오늘 람보가 언어맞는
꿀을 보겠군!



혹시 쇼생크 탈출도
보셨을걸요?



재단 동정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혈우재단 약품비 지원 중단

2000년 7월부터 실시될 의약분업의 전단계로 1999년 11월 15일부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됨에 따라 혈우재단의 약품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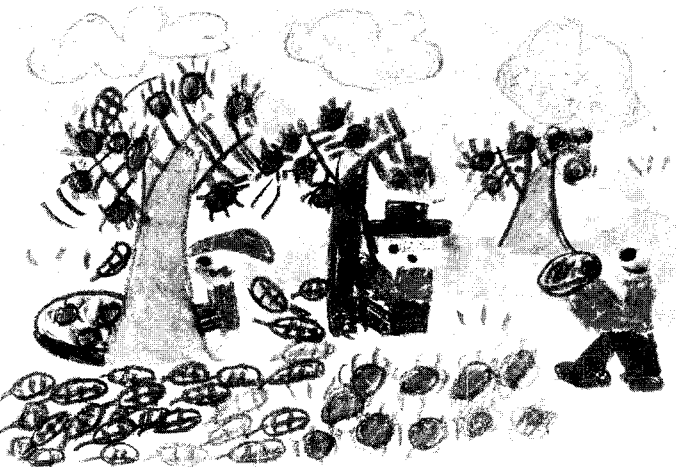
혈우재단은 등록된 회원의 약품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재원 확보 방법으로 크게 세가지 방법을 취해왔습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그리고 재단부설의원의 의료수입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1999년 9월부터 기업의 기부금이 중단되었고, 위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라 1999년 11월 15일부터 재단 부설의원의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회원들의 약품비 지원 업무가

중단된 것입니다.

혈우재단은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란?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에 대한 비용을 구입한 가격 그대로 의료보험에 신청하여 상환받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즉 의료기관은 의약품 처방에 따른 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표지 설명

99년 어린이 날 행사 그림부분에서 가작으로 당선된 박영훈(10세)군의 작품으로 시골집의 한적한 과수원 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밤송이를 흔들어 따는 어린아이들의 익살스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같이 도시생활에 찌든 우리 아이들, 가끔은 자연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메시지

20세기의 마지막에 선 우리들, 후회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던 긴 세월이었습니다. 새 천년의 해가 뜨다고 특별히 환경이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만이라도 새 마음, 새 의미로 새 천년을 맞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희망의 씨를 뿌린다면 언젠가는 기쁨의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을 믿기 때문입니다.

혈우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전국의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한국혈우재단보가 계간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바람을 견딜 수 있음은 곧 다가올 따뜻한 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이 있음을 믿는 마음으로 제 34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저희 편집부의 작은 정성이 코헬가족 여러분에게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코헬"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코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내 용 : 시, 수필, 투병수기, 체험담, 콩트 등의 문예물과 기타 알릴만한 내용과 혈우병치료에 관한 궁금한 사항
2. 모집기간 : 별도의 모집기간없이 수시모집
3. 보내실곳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4-1 포은빌딩 3층 한국혈우재단
4. 상 품 : 참가지와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希望(희망) 에찬론

希望을 갖는 모든 이들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

希望은 용기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단일 붐로이다.

希望은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希望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希望은 봄날의 새색시와도 같아서 몸을 유쾌하게 만들며

希望은 장마철의 비와 같아서 한번 시작이 되면 끝을 봐야하는 직성을 가지고 있다.

希望은 가을의 낙엽처럼 쌓이고 쌓여 거대한 산더미를 만들며

希望은 흰눈처럼 세상을 하얗게 만들기도 한다.

希望은 불과 같이 무섭게 타오르지만

希望은 때론 차가운 물처럼 단숨에 저버리기도 한다.

希望은 돌처럼 변하지 않으며

希望은 인간의 마음처럼 변덕스럽지 않다.